

# 전남도, '재생에너지100' 중심지 도약 잔걸음

## 4대 분야 22개 전략과제 담 재생에너지발전특구 등 추진 재생에너지 4법 재·개정 노력 "에너지 기본소득·일자리 창출"

전남도가 글로벌 재생에너지100(RE100) 목표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를 위해 전남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본계획안은 전남의 햇빛·바람을 타고 글로벌 RE100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재생에너지발전특구 △RE100 솔루션 △RE100 기본소득 △RE100 글로벌 확산 등 4

대 분야 22개 전략과제와 재생에너지 4법 재·개정, 추진단 운영 등 2대 추진체계 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특화된 전남에서 발전사업자에게는 재생에너지발전특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100 솔루션을 지원한다. 도민에게는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발전특구는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수익공유형 태양광발전단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대형 프로젝트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100 솔루션은 재생에너지100 특화

산단,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기업지원 센터 등 차별화된 RE100과 분산에너지 솔루션을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오고 싶은 전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RE100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 펀드와 발전기금 등 도민에게 관련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도입해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확산은 전남 RE100 정원 조성, 국제행사 등을 통해 전남 RE100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전남을 세계인이 찾는 RE100 허브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

성해 머리를 맞대고 차별화된 과제를 발굴해 왔다.

또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전남이 대한민국 RE100·분산에너지 중심이 되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창환 경제부지사는 "전남에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인제가 모여들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재생에너지 전국 1위 경쟁력을 토대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남만의 RE100 성공사례를 만들것

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계획안에 각계 의견을 더해 전남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는 한편 내년 초 전남도 RE100·분산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전남도의 RE100 비전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전문가 보고회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이동호 목포대학교 교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전 KDN, 전남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개발공사 및 12개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남도 재생에너지100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광주시,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 통합예약플랫폼 '바로예약' 접근성·효율성 개선 등 기대

광주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유선전화로 예약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유선전화 접수방식인 탓에 근무시간에만 접수 가능한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시간 제약 없이 상담자가 원하는 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예약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통합예약플랫폼인 '바로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시민들은 기존처럼 유선전화(062-613-2773)로 상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 무료 법률상담은 화요일·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매주 3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다.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해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권범 기자



전남의정회 초청 도정·교육설명회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도의회 의장, 김대중 도교육감과 의정회 회원 등이 지난 24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전남의정회 초청 도정·교육설명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박종원·전서현·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주종광 호남정책학회장, 홍인화 호남정책학회 부회장,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 등이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전남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정책세미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 "지방소멸 극복...전라남특별자치도 제정을"

### 호남정책학회 정기세미나 박종원 "맞춤형 전략 마련"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극복을 위해서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제정과 더불어 지역 맞춤형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남정책학회는 최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24 호남정책학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남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의회 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인 정영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박종원 특위 위원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에 있어 전남의 특수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전남의 인구 감소와 고령

화 문제는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전남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는 전남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자치권 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을 통해 전남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열띤 논의도 이어졌다.

한편, 박종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서현, 조옥현, 박선준, 최미숙, 이재태, 최동익, 정영균, 정철, 임형석 의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전남도의회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전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지현 기자

## '독감 유행'...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광주, 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시 "소아·어르신 꼭 예방접종"

광주시는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독감'으로도 불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12월 2주차(50주, 12월 8일~14일) 기준 1000명당 13.6명으로, 유행 기준(8.6명)을 초과했다. 특히 광주지역은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1000명당 19.4명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극심했던 지난해 같

은 기간(전국 기준 1000명당 54.1명)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전국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47주 4.8명, 48주 5.7명, 49주 7.3명, 50주 13.6명으로 증가했다. 광주 지역도 47주 6.4명, 48주 7.7명, 49주 12.5명, 50주 19.4명 급증했다.

광주시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형(A형)과 이번 절기 백신주가 매우 유사해 충분한 백신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광주시는 특히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 등 중증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집단생활로 감염에 취약한 소아 청소년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20일부터 인플루엔

자 유행에 대비해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을 위생 수칙을 지키고, 38.0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장은 "어르신,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의 경우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 고위험군이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돼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권범 기자

## 광주시, 감사활동 전국 특광역시 1위

### 감사원 심사 3년연속 'A등급' 감사기구 독립성·전문성 호평

광주시는 감사원 주관 '2024 자체감사활동(2023년 감사실적)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는 특·광역시 중 1위이며 3년 연속 최

고 등급을 달성, 전국 최고 수준의 감사활동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677개 기관의 감사활동을 심사한다. 심사 기준은 감사 기반 개선, 감사 기획·수행 역량, 감사성과, 사후관리, 적극

행정 지원 등 10개 지표를 평가해 A부터 D까지 등급을 나눈다.

광주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모범사례 발굴, 감사기구 간 협력, 일상감사 활성화, 청렴기동반 활동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권범 기자